박목월의 성경인용 시에 나타난 신앙적 성찰과 시적 형상화

김인섭*

‖ 차 례 ‖

Ⅰ 들어가는 말
Ⅱ. 성서인용의 제양상과 특징
Ⅲ. 맺음말

【국문초록】

박목월은 일제 강점기에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으로 등단하여 1970년대 후반 타계하기까지 다양한 시적 변모를 보여준 이 땅의 대표적인 서정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생애 종반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성경을 수용하는 시편들을 적지 않게 남겨 기독교 신앙으로 시세계를 마무리하였다. 본고는 전통 서정시인의 기독교 성경 인용의 어휘적, 내용적 양상과 시적 형상화의 특성을 살펴 박목월 시인의 성경 인용상의 시적 독자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시어적 측면에서는, '성경(책)'이라는 단어 자체와 성경의 장절(章節)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성경 특유의 어휘들(인명, 지명, 사물 등)과 관용어구의 인용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구절이나 문장 차원의 인용양상은 장을 달리하여 내용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성경의 구절을 변형 없이 그대로 시적 표현으로 인용한 경우와,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앙적 해석과 성찰을 드러내거나 주관에 의해 변형하여 서정적으로 내면화한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성경 인용에 있어서 박목월 시인 특유의 시적 성과는, 인용한 성경 구절과의 병치적

*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구성을 통하여 성경을 내면화하기도 하고, 성경의 소재나 배경을 인용하여 새로운 서정성을 확보한, 기법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같은 성과는 다른 기독교 시인의 성경 인용이나 인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박목월 시의 서정성의 결과이며 그만의 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박목월, 청록파, 서정시인, 기독교, 성경 , 성경인용, 신앙적 성찰

Ⅰ. 들어가는 말

박목월은 1939년 『문장』지에 정지용의 추천으로 등단하여 일제 강점기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1978년 지병으로 타계하기까지 490여 편에 달하는 시를 통해 다양한 시적 변모를 보여준 시인이다. 그는 기독교 성경을 수용한 신앙 시편들을 적지 않게 남겼다. 1979년 문학사상사에서 '박목월유고시집' 『소금이 빛나는 아침에』와, 1987년 미망인에 의해 신앙시만 모은 유고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이 발간되어 기독교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주목케 하고 있다.[1)]

본고는 성경을 인용한 시편들의 형태적, 내용적 양상과 성서인용을 통한 시적 형상화의 제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2)] 한국 기독교 시인들과는 변별되는 서정시인 박목월 특유의 성경 인용상의 특징을 찾는 데 논의의 목적이 있다. 한국 현대시인의 기독교 성경 수용에 대해서는 필자가 윤동주와 김현승을 대상으로 고찰한 바 있다. 윤동주의 기독교 의식과 시적 성

1)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모습은 그의 유고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에 가서야 비로소 확연하게 나타난다."(최승호, 「1960년대 박목월 서정시에 나타난 구원의 시학」, 『어문학』 76집 p.506)는 지적 참조.

2) 논제를 신앙시나 기독교시로 하지 않고 '성경인용 시'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기존에 많이 논의한 시의식의 측면보다는 시작법의 일환으로 성경이 쓰인 사례를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과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재조명하는 방안으로서 기독교 성경을 어떻게 수용하였으며, 신앙발단단계이론에 비추어 성경수용의 신앙적 수준을 가늠해본 바 있으며[3], 성경 인용 빈도수가 높은 편인 김현승에 대해서는 성경의 구절이 비유로 활용되거나 관용적인 어구나 개인적 상징으로 자리잡아 성경을 폭넓고 심도 있게 수용한 시인으로 평가한 바 있다[4]. 나아가 두 시인을 '문맥의 이중화'라는 측면에서 성경 수용의 조화와 대립의 양상을 대비하여 기독교 신앙을 내면화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음을 밝힌 바 있다[5].

박목월의 기독교 의식을 성서의 설화적 모티프와 표상의 양상 측면에서 다룬 논의로는 신익호의 연구[6]를 들 수 있다. 박목월의 시에서 성서의 설화적 모티프를 소재로 한 작품은 몇 편에 지나지 않으나 작품들에 나타나는 설화는 성서의 원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스스로를 화자로 설정하여 회개하며 고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박목월 시인은 윤동주나 김현승처럼 기독교 집안(목사, 장로)에서 성장하면서 어려서부터 성서를 접하고,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시의식으로 삼은 경우와는 종교적 배경이 다르다. 불교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고도 경주에서 태어나 유년시절 어머니의 소박한 신앙적 인도를 받아 무의식적으로 신앙을 체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애 말년에 가까이 가면서 신앙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시를 활발하게 창작한 것으로 보인

3) 졸고, 「윤동주시 평가의 재조명 -성서수용과 신앙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신앙과학문』 18-3, 기독교학문연구회, 2013.9.
4) 졸고, 「김현승 시에 나타난 성경수용의 제 양상과 특징」, 『문학과종교』 19-3, 2014.가을.
5) 졸고, 「성서인유에 따른 '문맥의 이중화' 양상 비교-김현승과 윤동주 시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1, 2015.12.
6) 신익호, 「현대기독교시의 분석-박목월론」, 『기독교와 한국현대시』, 한남대학교출판부, 1988, pp.211~232.

다.[7] 중반기 시들에서도 이따금 성서의 흔적과 신앙적 사유를 보여주기도 했다. 신앙시를 쓸 때에는 성경의 출처를 정확하게 인용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서정 시인답게 성경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서화하고 기법적으로도 시적 형상화에 있어서 하나의 패턴과 시적 방법을 이루어 기독교 성서 인용 시의 독자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를 통하여 기독교 교리나 사상이 이 땅의 전통적인 토양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었는지 기독교 토착화의 문화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으며, 시문학적 측면에서는 외래적 사상의 정서화의 모습을 통해 한국 근대서정의 한 영역이 개척되는 시적 성과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박목월 시에서 성경을 인용한 시편은, 1950년대 후반에 간행한 시집『蘭其他』(1958)에 2편(<下棺〉, <효자동〉), 1960년대에 간행된『晴曇』(1964)에 2편(<同行〉, <一泊〉),『경상도 가랑잎』(1968)에 1편 (〈내년의 뿌리〉), 그리고 장시집『어머니』에 6편(<수요일의 밤하늘>, <바다로 기울어진〉, <갈릴리 바다의 물빛〉, <어머니의 시간〉, <목마른 사슴〉, <하늘엔 영화, 지상에는 평화〉), 1970년대 들어서 발간된 시집『砂礫質』에 3편(<중심부에서〉, <天使에게〉, <틈서리〉) 등 시인 생전에 발표한 14편, 그리고 1970년대 말에 미망인에 의해 신앙시만 모은 시집 사후 시집『크고 부드러운 손』에 25편, 1987년 문학사상사에서 발간한 유고시집『소금이 빛나는 아침에』에 4편 등 유고 시집들에 실린 29편으로 총 43편에 이른다.

---

7) "그의 신앙시들은 질문을 던지며 망설이는 회의와 부정의 거친 호흡보다는 구속과 질서 안에서의 안도를 노래하는 긍정의 환한 숨결(확실한 외침)로 채워져 있다." (황인교,「박목월의 신앙시」,『기독교사상』397, 1992.1, p.249.)

Ⅱ. 성서인용의 제양상과 특징

성경을 인용하는 시편들을 통해서, 시어 차원에서 성경 특유의 어휘들, 인명이나 지명, 특정 사물, 성경적 개념이나 관용어구 등의 사용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박목월은 '성경(책)'이나 성경의 장절(章節) 자체를 시어로 쓰기도 하였다. 구절과 문장 차원의 시어는 내용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경의 내용과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여 직접적으로 시의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시적 화자의 견해와 태도를 반영한 주관적 해석과 서정적 내면화의 양상을 더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박목월의 성경인용 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성경의 인용 내용과의 병치적인 표현을 통해 성경을 수용하는 방식을 볼 수 있고, 성경의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나 성경의 소재와 내용을 사용하여 독특한 새로운 시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시어적 측면

(1) 시어로서 '성경(책)' 및 성경의 장절(章節)

시에 '성경(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편을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시인이 성경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성경을 시의 내용으로 수용하게 된 동기나 배경을 엿볼 수 있다. 박목월 시에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시는 ≪蘭・其他≫(1958)에 수록된 <下官>이라는 시이다.

> 棺이 내렸다. / 깊은 가슴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 주여. / 容納하옵소서. / 머리맡에 聖經[8]을 얹어주고

8) 인용 시작품과 본문에 있는 성경구절의 밑줄은 필자에 의함. 이하 마찬가지임.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 좌르르 下直했다.

<下棺> 1연

동생의 죽음을 겪으면서 쓴 시에 “주여. 용납하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성경’이 처음 등장한다. 동생의 죽음을 다룬 유고시집의 또다른 작품에 의하면 가족이 함께 그 성경을 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9] 박목월은 유년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을 생활화하고 성경을 접하기 시작하였으며,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룬 뒤에도 성경을 읽었다.

성경책을 끼고 소년은 등성이를 넘어갔다. 머리를 곱게 빗은 어머니가 소년 옆에 따라 왔다. 약간 골이 난 듯한 어머니의 긴장한 얼굴. / 三日만에 불이 켜지는 水曜日의 밤예배. 〈水曜日의 밤하늘〉 2연

성경은 어머니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등을 함께 외우며 신앙생활을 몸에 익히던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였고, 성인이 되고 노년에 이를수록 성경을 읽고 깊이 있는 신앙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遺品으로는 /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의 언더라인> 1~4행

9) 유고시집에 수록된 <降雪 三題 2> 2연을 보면, 그날 가족들이 읽은 성경은 사랑을 주제로 한 ‘고린도전서 13장’이었다.
이튿날은 / 날씨가 차고 맑았다. / 겨울 아침답게.
그러나 찬란한 햇살은 / 이미 그에게는 / 이승의 것이 아니었다.
聖經은 고린도전서 13장. / 사랑의 말씀을 /산者만 모여 / 눈물 읽었다. (2연)

지금 내가 읽는 / 이 책은 / 어머니께서 유물로 남겨주신 / 성경이다.(중략)
지금 나도 / 돋보기 너머로 어머니의 성경을 / 읽으면서
자식들을 위하여 / 주님께 축복을 간구한다.

<어머니의 성경> 부분

시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며, 성경을 읽을 때 어머니의 신앙심과 자애로운 모성을 함께 느끼며 그럼으로써 신앙을 관념이 아닌 살아 있는 실체로 경험하게 된다.[10] 성경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자식에게 전수하는 신앙의 가족사적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다.

간혹 聖經을 읽기도 했다.
마태福音 五章을, 고린도前書 十三章을. <孝子洞> 2연

그리하여 / 마태복음 十六장 / 十九절을 발견하고
참된 열쇠를 / 움켜잡는다. 〈순금의 열쇠〉 4연

이른 새벽에 일어나 / 내외가 / 돋보기를 서로 빌려가며
성경을 읽었다. / 눈이 오고 있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2절 / 읽을수록 / 그 신비 / 그 은총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앞부분(1~13행)

산상수훈(山上垂訓)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십삼장' 등 익숙한 내용, '마태복음 16장 19절'처럼 스스로 새

10) "<난 기타> 이후부터 존재에 관한 물음과 죽음에의 의식, 그로 인한 허무의 자각은 박목월로 하여금 신앙시로 나아가게 했으며, 그렇게 잉태된 신앙시는 어머니를 통해 구체화되게 된다."(김은정, 「박목월 시 속에 구현된 신과의 만남」, 『문예시학』 178, 충남시문학회, 2000, p.187.)

롭게 인식하고 실천적 강령으로 삼은 구절은 성경의 장(章) 명칭을 그대로 시어로 쓰기도 하고, 감동을 받은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절' 등 성경의 장절 명칭과 함께 그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까지 인용하기도 한다.

그의 시에서는 시 제목의 부제(副題)로 성경의 장절 명칭을 붙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그 장절의 핵심 소제나 주제어가 시의 제목으로 제시된다.

<감람나무 - 시편 一二八편>
<돌아보지 말자 - 창세기 一九장 六절>
<믿음의 흙 - 요한복음 九장 一~十一절>
<네 믿음이 - 마태복음 九장 二三절>
<희고 눈부신 천 한 자락이 - 사도행전 十장 十절>

<감람나무>의 부제인 '시편 一二八편'은 128편 3절[11]이 중심표현으로서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을 비유한 '어린 감람나무'에서 제목을 따온 작품이다. <돌아보지 말자>의 부제는 '창세기 19장 6절'로 표기되어 있으나 19장 26절[12]의 오류이며, 시는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믿음의 흙>은 부제인 '요한복음 9장 1~11절' 가운데 6,7절[13]의 맹인을 고친 예수의 이적 기사에 나오는 '맹인의 눈에 발라준 흙'을 제목으로 삼은 시이며, <네 믿음이>는 부제의 구절[14] 중 예수의 옷자락을

11)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12)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13)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만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한 예수의 말의 한 부분을 제목으로 취한 시이다. <희고 눈부신 천 한 자락이>는 부제의 '사도행전 10장 10절'에 이어 11절[15]에 나오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희고 눈부신 천 한 자락'으로 심상화하여 제목으로 삼은 시이다.

인용하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구절의 장절 명칭을 시의 부제로 병기하여 시 인용의 출처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시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시를 쓴 시인의 동기와 목적이 뚜렷한 만큼 독자에게는 인용의 출처에 대한 지식과 소양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정영역의 성경 인용은, 인용의 전거가 널리 알려진 수사법인 시적 인유(引喩)로 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2) 성경적 어휘(인명, 사물)와 관용어구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 시들에는 인명이나 지명, 사물 등 성경 특유의 어휘나, 성경의 독특한 관용적 표현에 따른 개념들이 등장한다. 특정 인물이나 장소[16], 사물 등이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새로운 문맥을 형성하여 인유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의 성경 장절(章節)의 직접 인용과 마찬가지로 일반 독자들에게는 소통에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다.

베드로여. / 베드로여. / 베드로여.

---

14)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5)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16)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등 인명이 등장하는 <中心部에서>와 소돔과 고모라, 갈릴리 등 지명이 등장하는 시에 대해서는 후술.

지상의 열쇠 / 꾸러미를 버림으로써 / 얻게 되는
신앙으로 다듬어진 / 순금의 열쇠.

<순금의 열쇠> 마지막 연

주여 / 우슬초로 /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 당신이 창조해 주심으로 / 나는 새롭게 눈을 뜨고
내 안에 돋아나는 / 기름진 잎새. (중략)
어린아기의 마음으로 / 쌓아올리는 예루살렘성
믿음의 주춧돌에 / 돋아나는 우슬초.

<우슬초> 9~16행, 마지막 부분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인물이라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지상의 열쇠와 구별되는 천국 열쇠로서 '순금의 열쇠'가 어떤 속성을 지닌 것인지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시를 읽어도 분명치 않을 수 있다. '우슬초'는 구약시대에 유월절(출 12:22)과 나병환자의 결례(레 14:4, 민 19:6) 등 각종 정결의식에 피 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시 <우슬초>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 51:7)를 인용한 시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물로서 '우슬초'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신앙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는 시의 문맥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 시적 화자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박목월의 성경 인용 시에는 또한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들이 다수 등장한다. 기독교 신앙이나 소양을 지닌 독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들은 널리 알려지고 익은 표현이어서 별다른 문맥 없이도 전달력을 가진 성경의 구절들이다.

간소하게 정결한 침상은 / 과연 나를 위해 마련되었을까.
송구스럽다.송구스럽다. /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만 허락된 잠자리.
<天使에게> 2연

환한 긍정의 눈을 뜨고 / 마음 가난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平信徒의 / 짧고도 힘찬 기도 <평신도의 장미> 13~16행

苦惱는 人類의 벗을 길 없는
영원한 宿命. 아담의 이마에 절이는 소금.
그러나 忍苦로 神을 볼 수 있는 / 그것은 또한 神의 恩寵.
<同行> 2연 15~18행

<天使에게>와 <평신도의 장미>에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5:3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의 '심령이 가난한 자'[17]의 개념이 등장한다. <同行>의 '아담의 이마에 절이는 소금'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다.'[18]는 관용어구로서, 창세기 3:19절의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는 말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운명을 짊어진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노동에 따른 수고를 말한다.

내일은 / 내일. 내일의 아침은 / 神의 領域. / 封해진 世界/

17)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써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전인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아무것에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한 자'를 뜻하는 관용어이다.(가스펠 서브 기획편집, 『성경관용어사전』, 생명의말씀사, p.783)

18)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되다.'는 뜻으로,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결과로 땅마저 저주를 받아서 사람을 고생을 해야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다. (가스펠서브 기획편집, 전게서, p.303)

내일 근심은 / 내일의 근심. 오늘은 오늘로서 足한.

<一泊> 2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19]이라는 성경 구절에 근거하고 있는 관용어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20]를 구체화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회환과 미래에 대한 불안(염려)으로 현재가 없는 삶, 지금 여기(now and here)의 행복과 축복을 놓치고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저는 목마른 사슴 / 六, 七月 해으름에 / 산길을 헤매는.
은은한 물소리를 찾아/당신을 /渴求하며 길을 헤매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초반부(1~7행)

'목마른 사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는 관용어구[21]로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1)라는 구절에 근거하고 있다. '물소리'는 사시사철 물이 풍부한 시냇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비유한다. 성경 특유의 개념과 진리를 담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시들은 1960년대 간행된 시집 『晴曇』과 장시집 『어머니』에 각각 수록된 <同行>, <一泊>과 <목마른 사슴>, 1970년대 들어서서 발간된 시집 『砂礫質』에 수록된

19) 마태복음 6장 34절

20) 내일이 나의 날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도 족하므로, 내일의 염려를 미리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가스펠서브 기획편집, 전게서, p.190)

21) 갈증을 참지 못하는 사슴이 극한 갈증으로 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다(가스펠서브 기획편집, 전게서, p.594)

<天使에게> 등 시인의 생전에 발간된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이는 신앙시를 모은 유고시집이 쓰이기 전에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었으며, 일부 내용들은 관용적인 표현들로서 그의 시어로 이미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내용적 측면

(1) 성경 구절과 문장의 직접적 인용

실로 / 지난 발자취는 눈으로 덮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 오직
진리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게 됨을 / 믿게 하여 주십시오.
… (중략) …
거듭난 것이 썩지 않는 씨앗이 되어
地上에 平和 / 하늘에 영광을 돌리는 / 이 거룩한 밤을
사랑과 평화와 소망으로 / 경건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밤에> 15~20행, 61~67행

이 시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사 40:8),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등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이 인용되었다. 관용구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다'[22], '썩지 아

22)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단순히 소멸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향력(효력)과 약속한 바에 따른 성취가 영원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가스펠서브 기획편집, 전게서, p.349)

니할 씨'[23] 두 가지로서,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처럼, 무한한 영원성에 대한 소망을 별다른 수식이나 첨언 없이 성경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둘씩 짝을 지어 / 거저 받은 것을 / 거저 베풀어 주러 가자.
금이나 / 은이나 / 구리를 지니지 말고
두 벌 옷이나 / 신이나 /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 베풀어 줌으로 확인하자.

<말씀을 전함으로 기독교인이 되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마 10: 8~10)는 성경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뒤, 베풀어주는 실천을 통해 믿음을 점검하자는 내용으로 시를 마무리하였다.『신앙계』라는 잡지 100호 발간을 축하하는 기념시로서, 신앙인들이 함께 다짐해야 할 내용을 주관적인 강조나 개인적인 주장없이 시에 공적인 전언을 담고 있다.

설사 몇 푼의 은전으로 / 오늘과 바꾸는
이 / 측은한 출입 속에서도 / 우리들의 우편에서 / 그늘이 되고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낮의 해가 / 우리를 상하지 말게 하고
밤의 달도 /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23) 살아 있고, 항상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유지된다.(가스펠서브 기획편집, 전게서, p.794)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 주소서.

<우리의 출입> 마지막 부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 121:5~8)라는, 인용의 전거가 되는 성경구절의 부분부분을 행과 연에 따라 적절히 순서를 바꾸어 배열하였다.

神은 사람과 함께 居하시고 / 人間은 神이 거처하는 자리다.

<來年의 뿌리> 2연

시인의 생전 시집인 ≪경상도의 가랑잎≫에 수록된 시로서, "인간은 신이 거처하는 자리"라는 개념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 구절에 근거한 것으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구절을 일반화하여 '人間'과 '神'의 추상명사로 바꾸었고, 그 앞에 "神은 사람과 함께 巨하시고"라는 유사한 내용을 첨언하여 성경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성경구절과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시적 화자의 개입이 없이 성경의 표현을 반복하며,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출처의 구절을 동시에 인용하여 연관시키거나, 긴 구절들은 순서나 행과 연의 배치 등에 변화를 주어 인용하였다. 생전에 발표한 작품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는 시어들을 일반화, 추상화하고 미세한 변주를 병행하여 성경 구절을 강화하는 표현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신앙적 해석과 서정적 내면화

우리의 生活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또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야 / 비로소 衣食에 窮하지 않는 것이
人間에게 주어진 刑罰일지라도/ 躁急히 굴지 말자./ 설레지 말자.
항상 마음을 비워두고 / 가난 속에 스민 은혜와
苦惱 안에 싹트는 구원과 / 절망 속에 넘실대는 희망을 / 한 팔로 싸안고 / 소란한 時代일수록 / 聰明한 눈을 뜨고 / 조용하자.
진실로 / 人間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닐진대
무엇에 우리의 生活이 / 拘束되랴.

<新春吟>(491) 중반부(17~34행)

고달프고 분주하게 살아가야 할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진리를 인식하여 자유를 얻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심경이 토로되어 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창 3:19),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은 복,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신 8:3)라는 세 군데의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종국적으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데서 자유로움을 느낀다. 시적 화자는 적극적으로 성경구절을 해석하고 연결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또다른 성경구절(요한복음 8:32)의 진리를 시의 함축적 의미로 만들었다.

마태복음 十六장 / 十九절을 발견하고
참된 열쇠를 / 움켜잡는다.
지상의 열쇠 / 꾸러미에 없는
순금의 신앙으로 다듬어진 / 열쇠 //
지상의 열쇠 / 꾸러미를 버림으로써 / 얻게 되는

신앙으로 다듬어진 / 순금의 열쇠

<순금의 열쇠> 3,4연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한 말로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였다. 이 시의 '순금의 열쇠'는 예수가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한 '천국열쇠"[24]를 시적 화자가 자신의 신앙으로 내면화한 시적 결정체이다. 신앙으로 단련되어 '지상의 열쇠'로 상징되는 물질적 소유에 매이지 않는, 순금처럼 맑고 투명한 영혼이 되어 천국백성이 되고자 시적 화자의 신앙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나는 하루에도/ 하루에도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된다.
신문지로 만든 冠에 / 마음이 유혹되고
잿더미로 화하는 / 재물에 미련을 가지게 되고
오늘의 불 앞에 / 마음이 흔들리고
뱀의 혀의 / 꾀임에 빠져 / 뒤를 돌아본다.

<돌아보지 말자 - 창세기 一九장 六절> 중간부(14~25행)

위 시는 창세기 19장 26절[25]을 인용하면서, 화자는 자신을 성경에 등장하는 롯의 아내와 동일시한다. 롯의 아내는 집과 재산에 미련을 두어 그것을 두고 떠나기 싫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시의 후반부에서 시의 화자는 세속적인 명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문지

24) 천국 문을 열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백성이 되게 하는 교회의 권세를 말한다.(가스펠서브 기획편집, 전게서, p.892.)

25)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로 만든 冠'에 마음이 유혹되고, 언젠가는 소멸될 물질인 '잿더미로 화하는 제물'에 미련을 가지게 되고, 롯의 아내와 동일시되어 있는 화자는 '뱀의 혀의 꾀임'에 빠져 죄를 범한 최초의 여자 인류인 이브와 다를 바 없이 뒤를 돌아본다고 고백한다.

> 人類의 마지막 所望에 參與하는 것,
> 아무리 忍苦의 쓴 汁이 / 오늘의 盞위에 넘칠지라도
> 이 거룩한 役事에 / 오늘은 오늘로서 參與하는.
>
> <同行>(164) 종반부(2연 42~46행)

'인류의 마지막 소망에 참여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에 있을 부활에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대 사건을 말한다.[26] 이 사건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 시적 화자의 입장이 이어지는 네 행에 드러나 있다. 이 '거룩한 역사(役事)'에 각자는 그날그날을 '인고의 쓴 즙'으로 참여하여 인류의 마지막 날 소망을 현재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 세속적인 / 권위와 명성과 / 타산으로 얽힌 자리를 걷어 들고
> 걸어갈 수 있는 / 신자가 되기를 / 열망한다.
>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 말씀하심으로 / 걸을 수 있는
> 그 절대의 능력을 / 전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 내가 되기를 열망한다. <자리를 들고>(449) 후반부

예수가 38년 된 병자에게 한 예수의 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요 5:8)를 인용하였는데, 병자로 하여금 그 자리(bed)에 누워

26)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요 11:24)

있게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원인을 화자는 "세속적인 권위와 명성과 타산"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행갈이를 통하여 자리를 '걷어 드는' 일과 '걸어가는' 두 단계의 기적을 동시에 성취하는 예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오른편에 /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 믿음과 신뢰의 /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 말씀 안에 /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한
> 때로는 베드로처럼 / 펄펄 살아 있는 고기를
> 그물이 미어지게 / 건져 올릴 수 있다. <오른편>(449,450) 종반부

관련 성경 구절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요 21:6)이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의 명령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인용했다. 시의 화자는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를 자신의 신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믿음과 신뢰의 그물을 던지는 자', '말씀 안에 그물을 던지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성경의 구절과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보다 화자가 자신의 경험과 의지, 심경을 토로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함께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화자가 내면화할 때 시적 서정성이 두드러지는 시편들을 접하게 된다.

> 마음이 가난한 者는 福이 있나니…… 아아 그 말씀. 그 慰勞. 그런 밤일수록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한밤중에 줄기찬 비가 왔다.
>
> <孝子洞> 4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성경 구절로 인해 화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데, 화자의 내면에 흐르는 위로의 눈물은 다시 바깥으로 흘러 밤중의 바깥 빗줄기로 번져나간다. 시는 성경의 진리나 내용에 대한 깨달음이나 인식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은 감회를 자연과의 교응을 통해서 성경을 서정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地球의 구석구석마다 / 촛불이 켜지고 / 따끝까지 / 평화가 깃드는
天上의 영광, 지상의 평화 / 구름 위에서는 / 별이 빛나고
작은 베들레헴에 / 불이 켜진다.

<작은 베들레헴에 불이 켜진다> 7연

‘天上의 영광’은 구름 위에서 별처럼 빛나고, ‘지상의 평화’는 작은 마을의 불빛들로 켜지고 있다. 천상의 별빛과 지상의 촛불이 서로 호응을 이루며 성경의 핵심 전언인 영광과 평화를 감각적인 이미지로 경험케 한다. 성경의 개념과 관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희고도 눈부신 / 천 한 자락을 하늘나라에서 / 내게로 드리워주셨다.
물론 비몽사몽 간에 / 그것이 /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을 통하여 /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물론 미련한 우리들이 /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희고도 눈부시는 천 자락이 / 눈 앞에 펄럭일 뿐
그러한 / 희고 눈부시는 / 천자락이
북소리처럼 / 가슴에 울리는 음성으로 / 변했다.
꽹과리처럼 / 자지러지게 울리는 / 음성으로 변했다.
하늘이 내게 베푸시는 은총 / 주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 표적을 보자.
나는 그 자리에서 타올라 / 재가 되었다.

<희고 눈부신 천 한 자락이-사도행전 十장 十절-> 전반부

얼룩진 보자기의 / 네 귀를 접듯 / 눈물과 뉘우침의 한 해를 챙긴다. (중략)
그 꿈과 / 의지와 뉘우침으로 오늘은 얼룩진 보자기의
네 귀를 다정하게 / 접는다.

<얼룩진 보자기의 네 귀를 접는> 첫부분과 마지막 부분

위의 두 시는 사도행전 10장 11절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는 베드로의 환상체험을 전거로 하고 있다. 앞의 시에서는 하늘에서 자신 앞으로 내려오는 그릇이 '희고도 눈부신 / 천 한 자락'으로 변형되어 있다. 그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북소리, 꽹과리처럼 '가슴에 울리는 음성'은 시각적 이미지에서 청각적 이미지로 바뀌어 내면으로 울려든다. '주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자, 시적 화자는 연소하여 '재'로 바뀐다.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나 감각적 전이를 통하여 전존재가 '불사조'의 영생을 획득하는 영적 체험을 경험한다.

두 번째 시는 성경 원전의 '보자기'와 '네 귀'를 인용하여 전혀 다른 문맥을 형성하여 시적 성찰을 도모한다. 앞 시의 '희고 눈분신' 천자락과 달리 '얼룩진' 보자기이며, '네 귀'를 가지런히 접는 행위를 뉘우침에서 비롯되는 눈물, 또는 뉘우침을 동반하는 꿈과 의지의 상반된 감정을 다스리는, 다정한 성찰의 도구로 변이되어 있다. 성경의 사물이나 이치, 진리가 시적 화자의 감각적 전이나 감정적 매개물이 되어 서정적으로 시에 수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기법적 측면

박목월의 성경인용 시편들에는 시인 특유의 시적 구성과 인식을 보여주는 소중한 성과를 접할 수 있다. 성경적 내용과 시적 표현이 병치적 관계를

이루어 성경의 인용 내용이나 성경적 요소가 시적 이미져리와 병치, 공존하여 새로운 서정적 세계를 구성하기도 하며, 성경적 소재나 개념이 시어로 쓰이면서 낯설고 난해한 시적 인식과 상상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 독자에게 애매성과 시적 긴장을 낳기도 한다.

(1) 병치적 구성에 의한 성경의 수용

이른 아침에 일어나 / 꾀꼬리 울음을 듣기도 하고
간혹 聖經을 읽기도 했다. <효자동> 2연

꾀꼬리 울음소리를 듣는 일과 성경을 읽는 행위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같은 시간에 함께 일어난다. 육신의 감각적 체험과 심령의 영적 깨우침이 병치되어 있다. 세속적인 일상성에서 벗어나 있는 세계이며, 시인에게는 영적인 신앙의 세계와 육체적인 감각 체험이 대등한 위치에서 내면적 쇄신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나리내 풍기는 / 새봄의 햇살 속에서
정결한 손바닥에 빛나는 / 순금의 열쇠
<소금이 빛나는 새날 아침에>(유고, 141) 마지막 부분

이 시의 '순금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이며, 하늘나라를 여는 특권을 뜻한다. '순금'의 이 열쇠는 손바닥이 정결한 사람에게서 빛나는 존재이며, "미나리내 풍기는 / 새봄의 햇살"과 병치되어 있다. 행실이 정결한 사람들에게 열리는 하늘나라와 겨울을 밀쳐 새봄을 열어 미나리내 풍기게 하는 봄날이 사실상 동일한 정서적 가치물로 병치되어 있는 것이다.

먹고 마심을 근심말자.
물만 마시고도 환한 모란꽃.
꽃이야 / 하나님의 뜻으로 / 피지만
구질구질한 用務로 분주한 /午後의 오늘의 約束

<牧丹 앞에서 -금년(一九六九年)의 모란꽃 첫 송이가 오늘(五月十二日) 피었다-> 2연

이 시는 누가복음 12장 28,29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의 밑줄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인용하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는 우리와 '물만 마시고도 환한 모란꽃'의 병치와 '하나님이 입히시는 들풀'과 분주한 用務와 약속으로 매여 있는 우리의 병치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가꾸고 돌보는 자연과 구질구질한 인간사에 매여 있는 인간들의 삶이 대조되어 있다. 이같은 시적 병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연을 통하여 인간들의 삶을 신앙의 견지에서 성찰하고 있다.

바다로 기울어진 사래 긴 밭이랑
아들은 / 골을 타고 / 어머니는 씨앗을 넣는다.
…(중략)…
진실로 / 어느 시대이기로니
젖과 꿀이 흐르는 고을이 있으리요마는
밭머리에 나란히 벗어 둔 / 두 켤레 신발에 나비 한 마리

<바다로 기울어진> 1,3연

출애굽기 3장 8절의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은 이스라엘의 하

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상태에서 이끌어내어 인도하고 유산으로 주고자 했던 축복의 땅인데, 이 시에서는 '바다로 기울어진 사래 긴 밭'으로 병치되어 있다.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일하는 곳이며, 그들이 벗어둔 신발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드는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땅이다. 이러한 병치를 통하여 성경을 인용하고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성경이 보여주는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의 세계와 어머니가 극명하게 병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땅에 글씨를 쓰시는 / 예수님의 모습을 / 나는 본 일이 없지만
> 믿음으로써 / 하얗게 마르신 어머니.
>
> <갈릴리 바다의 물빛을> 5~9행

땅에 글씨를 쓰는 예수에 관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에 등장한다. 죄를 짓고 붙잡혀 온 여인을 그들의 손에서 풀어나게,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기 위해 궁리하며 고심하는 예수와 하얗게 마른 어머니를 병치시키고 있다.[27] 예수와 화자의 어머니를 병치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육신과 영혼의 수척함을 요구하는 믿음의 어려움과 핍박하는 무리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의 고난을 병치하여 시적 화자로 하여금 글씨를 쓰는 예수의 뜻을 스스로 헤아릴 길을 마련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깨달음은 독자에게는 난해한 질문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

27) 크리스마스 카아드에 / 빛나는 天使여,
촛불에 떠오르는 / 어머니의 주름살.
<하늘에 榮光 ·지상에는 平和> 끝부분(20~23행)에서도 유사한 병치의 예를 볼 수 있다.

(2) 성경인용에 의한 새로운 시적 상상력

성경 인용의 시편들 가운데에는 성경의 인명이나 지명, 사물 등을 시어, 이미지, 비유 등 시의 요소로 사용한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난해하고 애매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호텔의 오전은 / 호밀밭처럼 조용했다.
간간이 문이 닫히고/ 또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먼 복도 끝에서.
나의 / 노우트의 흰 스페이스는 / 눈부시게 정결했다.
그 / 중심부에서 / 쩔렁쩔렁 울리는 / 지팡이 소리가 들렸다.
純銀의 고리를 단, / 세례 요한의, 사도 바울의
성에가 녹아내리는/유리창 밖으로 세상은 /고기비늘처럼 찬란했다.
눈에 덮인 기왓골에서 / 만세를 부르는 / 默示錄의 아침 햇빛.

<中心部에서> 전문

시의 제목에 등장하는 '중심'은 그의 다른 시[28]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중심에 가깝다. 닫히고 열리는 소리의 중심부, 눈부시게 정결한 노우트의 치우치지 않는 중심부이며, 거기로부터 쩌렁쩌렁 들려오는 세례 요한과 사도바울[29]의 순은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 소리의 청각의 세계가 있는 한편, 무겁게 짓누르는 눈으로 덮힌 기왓골에서 역전의 승전가를 부르는 묵시록[30]이 약속한 아침 햇빛의 세계가

28) <中心에서 - 돌의 詩 1> 참조

29)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의 길을 예비한 구약 마지막 예언자(마 3:1~17)이며, 사도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교리화하고 사상적 체계를 갖춘, 한자문화권의 공자에 대하여 주자가 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예수를 전후하여 예수 사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애쓴 인물들이다.

30) '요한 묵시록'은 로마의 박해 밑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조신권, 성서와 문학, p.355.)

있다. 중심부로부터 울려오는 청각과 고기비늘처럼 찬란한 묵시록의 아침 빛이 어우러진 세계가 이 시가 빚어낸 어떤 신령한 세계이다.

> 갈릴리 바닷가에 나부끼는 / 무화과나무 잎새 같은
> 신선한 삶을 / 누리게 하옵시고 / 갓 피어오르는 불길 같은
> 믿음으로 / 당신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
> <이만한 믿음> 24~30행

원관념 '신선한 삶'을 비유하는 보조관념으로 쓰인 '갈리리 바닷가에 나무끼는 / 무화과나무 잎새'는 전통적인 한국인으로서는 쉽게 연상하기 어려운 결합이다. 일반적으로 비유의 보조관념은 기지수(旣知數)로서 미지수인 원관념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인바, 이 시의 보조관념 '무화과나무 잎새'로는 원관념인 '신선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유추하기가 힘들다. 이어지는 비유 "갓 피어오르는 불길" 같은 '믿음'은 반대로 보조관념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만 '믿음'은 감각적인 보조관념만큼이나 쉽사리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신앙적인 세계의 경험은 감각적으로 객관화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부비는 승객/ 틈에 끼어서, 아니, 찌걱대는/뱃바닥을 디디고 서서.
> 비오는 거리를 / 내다보며, 줄줄이 내리는 / 사도행전을. 구절(句節)마다 / 젖어서, //
> 아아 빗속에 저무는 / 남대문로(南大門路). 갈릴리 바다의
> 쓸쓸한 물빛이어. <원효로 버스> 2,3연

이 시는 유고시집에 수록된 작품으로서 서울 남대문 거리와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를 병치시켜 한국인 독자로서는 물론 기독교 신자라고 하더라

도 쉽사리 연상하기 어려운 신앙적 시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의 첫연에서는 '시청 앞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길'을 '돛을 단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내리는 빗줄기를 '사도행전의 구절'들에 비유하여 젖고 있는 어떤 것으로 형상화하고, 빗 속의 남대문로에서 갈릴리 바다의 쓸쓸한 물빛을 상상하는 시인의 상상력은 한국 현대시가 도달하지 못한 박목월의 독자적인 경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Ⅲ. 맺음말

일제강점기 청록파의 일원으로 대표적 서정시인의 한 사람인 박목월 시인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수용하여 그의 시에 성경을 인용한 작품을 적지 않게 남겼다. 성경의 개념이나 사물, 인명과 지명, 관용어구 등을 인용한 시편들의 양상을 먼저 살폈다. 특히 관용어구는 시인의 생전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에서도 이미 등장하고 있어 시인이 일반적인 시를 발표할 때에도 성경에 대한 소양과 이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성경의 구절과 문장을 직접 인용한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성경을 자신의 주관에 따라 해석하고 그 내용을 서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시편들에서 박목월 시인의 신앙적 성찰과 수용의 특징을 볼 수 있었다. 다른 기독교 시인들, 예컨대 윤동주, 김현승 등이 성경의 내용을 시에 인용할 때 내용 위주로 인용하여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거나 거스르는 표현을 보여주는 데 반해, 박목월은 적극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내면화할 때 시적 심상을 동원하고 정서를 형상화함으로써 서정적 성서 수용의 한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신앙성찰 내지 성경 수용에 따른 기법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바, 예를 들어 '병치적 구성'에 의한 성경 수용이라든가 성서 인용에 따라 새로운 서정의 세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병치적 구성에 의한 성경 수용은 심층에 자리잡은 전통적 서정의 세계와 의식의 표층에 접촉된 기독교적 사유와 그 내용을 결합시킨 결과라고, 조심스럽게 이해해볼 수 있다. 일부 성경적 표현과 내용을 표현수단으로 인용하여 의식의 깊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식과 신앙적 고백은 함축적이고도 난해한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였고, 한국의 현실공간을 이스라엘의 예수가 활동했던 공간과 병치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서정세계를 볼 수 있는바, 전통적 서정시인이 외래적 사상을 서정적으로 내면화하는 가운데 이룩한 박목월 특유의 신앙적, 시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박목월, 『박목월시전집』, 서문당, 1984.
박목월, 『박목월유고시집 : 소금이 빛나는 아침에』, 문학사상사, 1987.
가스펠서브 편, 『성경관용어사전』, 생명의말씀사, 2005.
조신권, 『성서문학의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8.
조신권, 『성서와 문학』, 신원문화사, 1986.
김은정, 「박목월 시 속에 구현된 신과의 만남」, 『문예시학』 178, 충남시문학회, 2000, p.187.
신익호, 「현대기독교시의 분석-박목월론」, 『기독교와 한국현대시』, 한남대학교출판부, 1988.
김인섭, 「윤동주시 평가의 재조명-성서수용과 신앙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18-3, 기독교학문연구회, 2013.9. pp.75~103.
김인섭, 「김현승 시에 나타난 성경수용의 제 양상과 특징」, 『문학과종교』 19-3, 2014. 가을. pp.15~39.
김인섭, 「성서인유에 따른 '문맥의 이중화' 양상 비교- 김현승과 윤동주 시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1, 2015.12. pp.537~568.
최승호, 「1960년대 박목월 서정시에 나타난 구원의 시학」, 『어문학』76, pp.483~512.
황인교, 「박목월의 신앙시」, 『기독교사상』 397, 1992.1, pp.249~256.

Abstract

Religious Introspection and Poetic Formation in the Bible Quotation Poetry of Mokwol Park

Kim, In-seob

Mokwol Park is one of the poets of the Cheongrok group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is a representative Korean national lyric poet who showed a variety of poetic changes until his death in the late 1970s. Near the end of his life, he wrote numerous poems that accepted the Christian Bible, and he completed his world of poetry with his Christian belief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ormative and content conditions of Bible quot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oetic formation through bible quotation.

First of all, the quotations in the aspect of formation could be divided into the word "Bible" itself but also into Biblical names of paragraphs and verses, phrases, and individual sentences. In the aspect of contents, one could say that Bible verses were being used as poetic expressions, as if the narrator were expressing self-reflection or belief by quoting the Bible and poetically internalizing by subjectively changing the Bible verses.

The significant poetic results of Park's quoting the Bible is the revealing of unique poetic lyrics with quoted Bible verses and a juxtaposed structure and the creating of new lyrics using Biblical materials and background. Such formation could be considered Park's lyric characteristic and his defining result, which could not be seen in the works of other Christian poets.

Key Word : Mokwol Park, Cheongrok group, lyric poet, Christian Bible, Bible quotations, religious introspection

이름 : 김인섭
소속 : 숭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전자우편 : kiseob@ssu.ac.kr

이 논문은 2017년 8월 15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9월 8일 게재 확정됨.